

헤테로토피아 관점에 나타난 마르셀 반더스 공간표현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Expression of Marcel Wanders from the Heterotopia Perspective

주 저 자 : 정다진 (Jeong, Daji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박현아 (Park, Hyun A)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초빙교수
pha3848@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5.2.931>

접수일 2025. 06. 09. / 심사완료일 2025. 06. 09. / 게재확정일 2025. 06. 13. / 게재일 2025. 6.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modern design can offer emotional and extraordinary experiences beyond everyday space, focusing on Dutch designer Marcel Wanders. His work transcends mere function by integrating sensory narrative, symbolism, and a blend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alyzed through Michel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Wanders' spaces reflect four key traits : Sensory Extraordinariness, Hybrid Heterogeneity, Subversive Narrativity, and Fluid Boundary Experi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his major works reveals that his spaces function as experience-oriented heterotopic environments, forging emotional connections between users and cultural contexts, thus expanding the philosophic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contemporary design.

Keyword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요약

본 연구는 현대 디자인에서 일상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감성적이고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감각적 서사, 상징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다. 본 연구는 그의 디자인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른 공간'을 뜻하며,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각적 비일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 네 가지 특성을 통해 반더스 공간을 해석한다. 대표 작품들의 시각적 구성과 감성적 체험을 비교한 결과, 그의 공간은 단순한 미적 장식을 넘어 사용자와 사회-문화 간 감성적 연결을 창출하는 '경험 중심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기능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대 디자인의 철학적·문화적 의미를 확장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마르셀 반더스 공간의 개념
- 2-2.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개념

3.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마르셀 반더스 공간

- 3-1. 헤테로토피아 관점 선행연구
- 3-2.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마르셀 반더스 공간

3-3. 소결

4. 사례분석

- 4-1. 작품 선정 및 분석방법
- 4-2. 사례 분석
- 4-3. 종합 분석

5. 결론

- 5-1. 연구 종합 결론
- 5-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물리적·심리적으로 일상적이고 규격화된 공간 속에서 생활하며, 이는 자아 성찰과 재발견,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상적 공간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사람들은 비일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공간을 갈망하게 되며, 이는 감각적 자극과 정서적 치유의 중요한 통로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 디자인은 단순한 실용성과 가능성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존 질서와 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는 감각적 연출, 상징적 장식, 전통과 현대의 혼합을 통해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이질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독창적인 공간을 제안한다. 그의 공간은 시각적 자극을 넘어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며,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서 경험적 비일상 공간으로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더스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을 차용한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면서도 기존 질서와는 이질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공간'으로, 배제, 전복, 혼종, 중첩 등의 다층적 의미를 내포한다. 비록 이 개념은 권력과 규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공간 이론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 디자인 담론에서는 감각적, 서사적, 정체성 재구성의 공간적 메타포로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반더스의 디자인 언어는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시각적·감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현대적 해석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그의 공간을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감각 중심의 디자인이 현대인의 감정과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디자인과 철학,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잇는 문화적·개념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을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가 창조한 공간들이 어떻게 일상적 규범을 초월하며 새로운 현실을 제공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더스의 디자인이 현대인들에게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적 치유와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그의 디자인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과 비교하여 상호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두 개념이 실제 공간 디자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르셀 반더스의 디자인이 현대 디자인에서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르셀 반더스 공간의 개념

마르셀 반더스는 네덜란드 북스텔(Boxtel)에서 태어나 자랐다. 반더스는 1988년 네덜란드 아르헴(Arnhem)의 아르테즈 예술학교(ArtEZ Institute of the Arts)를 졸업하였고, 그곳에서의 학문적 훈련은 그가 장식적 요소와 실용성을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¹⁾



[그림 1] Knotted Chair(1996)²⁾

- 1) Marcel Wanders, Biography Marcel Wanders, 2017., (2025.05.08)
https://press.marcelwanders.com/wp-content/uploads/2017/11/Biography_Marcel_Wanders-1.pdf, Marcel Wanders Studio
- 2) DA CAPO AL CODA GALLERY, Knotted Chair, n.d., (2025.05.01.)
<https://www.dacapoalcodagallery.com/knotted-chair>

반더스는 젊은 시절부터 유럽 디자인계에서 급부상하였고, 1996년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대표작인 '매듭 의자(Knotted Chair)'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 작품은 로프로 짠 형태의 구조를 에폭시 수지로 고정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전통적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³⁾. 그의 성장 배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네덜란드의 디자인 교육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반더스가 규범을 벗어난 창의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⁴⁾.

마르셀 반더스는 자신의 개인사와 지역적 문화, 교육적 배경을 토대로 '디자인은 기능 이상의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발전시켜왔다. 그의 성장 과정은 단순한 기능 중심의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후기 모더니즘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그림 2] Mondrian Doha Hotel(2017)⁵⁾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은 기능성과 감성의 융합, 전통과 현대의 공존, 그리고 서사적 내러티브가 결합된 독창적인 미학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공간을 단순한 사용 목적을 위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경험을 유도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극장적 장치(theatrical device)'로 인식하였다.⁶⁾ 그의 공간은 시각적 충격과

조형적 장식성을 통해 사용자의 감각을 자극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특히 반더스는 고전적 요소와 장식적 모티프를 현대적 재료 및 기술과 접목시키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또한 반더스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하며, 사용자와 공간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중요시한다. 그는 공간이 '즐거움, 놀라움,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자인된 환경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⁷⁾. 이러한 철학은 그의 모든 프로젝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용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디자인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을 창조하며, 이는 21세기 디자인 담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마르셀 반더스의 디자인 철학은 인간의 감성과 경험,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중점을 둔 감성 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현대 디자인이 지나치게 기능성과 기술성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디자인은 인간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더스는 '기능을 넘어 인간 중심 디자인이 시작된다 (Human-centered design really begins where functionality ends)'고 강조하며⁸⁾,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또한 그는 디자인 실천에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창의적으로 혼합하는 독특한 양식을 전개해왔다.⁹⁾ 그는 고전적 장식과 문화적 상징을 현대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성적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닌, 과거로부터 정서적 자양분을 끌어와 현대인의 경험에 맞춰 재맥락화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반더스는 디자인을 기능성 이상의 의미, 즉 감성적 소통과 사회문화적 반영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디자인이 시대와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적 중재자로 작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¹⁰⁾

3) Marcel Wanders, Marcel Wanders : Behind the Ceiling, Gestalten, 2013, p.6.

4) Louis Kalf Instituut, Marcel Wanders, n.d., (2025.05.01)
<https://www.louiskalfinstituut.nl/en/marcel-wanders-2/>

5) Marcel Wanders, Mondrian Doha, n.d., (2025.05.04)
<https://www.marcelwanders.com/work/mondrian-doha>

6) Marcel Wanders, op.cit., pp.6-7

7) Audi Middle East, "Human-centered design begins where functionality ends", n.d., (2025.04.30)
<https://www.audi-me.com/en/stories/design/human-centered-design-begins-where-functionality-ends/>

8) Ibid

9) Marcel Wanders, Marcel Wanders: Interiors, 2011, p.9

10) Rethinking The Future, Marcel Wanders: Ideology and Philosophy, n.d., (2025.05.02.)

[표 1] 마르셀 반더스 공간 정의 및 개념

| 정의 | 내용 | 개념 |
|--------------------------------------|--|---|
| 감각의 서사성 (Narrativity of Senses) | ● 공간을 하나의 이야기 장치로 구성한다. 조명, 재료, 패턴, 오브제 등이 감각적 스토리텔링 요소로 작동하며, 사용자가 '읽는' 공간을 창출한다. ¹¹⁾ | 공간이 단순히 기능을 담는 용기에 서, 감각적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매체로 전환됨 |
| 장식의 복원 (Redemption of Ornament) | ● 모더니즘 이후 억압되었던 장식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오히려 중심적 요소로 부각시킨다. 고전적 문양, 금박, 곡선 등이 기능 위에 예술적 정서를 입힌다. | "Less is more" 대신 "More is more"의 철학. ¹²⁾ 오토바 그룹과의 작업, Moooi 브랜드에서 두드러짐. |
| 문화적 혼종성 (Cultural Hybridization) | ● 서구와 비서구, 과거와 현재의 상징들을 병치해 새로운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복합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 정형적·지역적 아이덴티티를 넘어서는 다층적 문화코드 구축. |
| 경험중심 공간 (Experience-Oriented Design) | ● 호텔, 레스토랑, 쇼룸 등 상업 공간에서 사용자 참여와 몰입을 중시하는 '감각적 연극성'을 구현한다. 공간은 단순히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경험을 소비하는 무대로 작동한다. | 건축이 일종의 '극장'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

2-2.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및 개념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른 공간'이며,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회적·문화적 질서를 반영하거나 전복하는 공간 구조이다¹³⁾. 프랑수아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67년 강연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에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푸코는 기존의 공간 개념이 현실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질서로 간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 속에 실재하지만 기존의 사회 질서와는 이질적으로 작

<https://www.re-thinkingthefuture.com/know-your-architects/a7458-marcel-wanders-ideology-and-philosophy>

11) Marcel Wanders, op.cit., p.4
 12) Ibid, p.8
 13) Michel Foucault,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 1967년 강연 원고, 1984

동하는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명명한다. 그는 이러한 공간을 유토피아(utopia)와 구별하면서,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기존의 규범이나 기능을 전도하거나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른 공간'이라고 설명한다.¹⁴⁾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리를 통해 작동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모든 사회는 헤테로토피아를 가진다.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문화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다른 공간들을 하나의 장소에 병치시킨다. 넷째, 이 공간은 일반적인 시간과는 구분되는 시간 구조를 가진다. 다섯째, 출입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종종 폐쇄적이다. 여섯째,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공간의 기능을 전복하거나 반영한다.¹⁵⁾ 이처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단순히 비일상적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규범, 담론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사회 구성체의 이면을 읽어내는 분석 틀로 기능한다. 특히 근대 이후 사회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권력을 배치하고 통제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표 2] 헤테로토피아의 여섯가지 '원리'

| 원리 | 내용 |
|------------|--|
| 보편성 | 모든 사회는 고유한 헤테로토피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헤테로토피아는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 변천성 |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능이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묘지는 과거에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했으나, 현대에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
| 병렬성 |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을 하나의 실제 장소에 나란히 구현할 수 있다. 극장이나 영화관이 그 예로, 다양한 설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
| 시간분할성 |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인 시간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간은 시간을 축적하는 장소로, 특정한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
| 열림과 닫힘의 체계 | 헤테로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자유롭지 않으며, 특정한 조건이나 의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감옥은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 닫힌 공간의 예이다 |

14) 미셸 푸코, (이 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학지성사, 2014
 15) Ibid., pp.15-26

| | |
|-------|--|
| 이의제기성 |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현실의 질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표 2]의 6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유형'인 공간의 실제적 사례도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푸코가 이론적 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원리에 대응하는 여섯 가지 '유형'의 실제적 공간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 철학적 추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도다.

다음 [그림 2]는 헤테로토피아의 여섯가지 원리와 그 유형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2] 헤테로토피아 6가지 원리와 6가지 유형의 관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예로 감옥, 병원, 묘지, 박물관, 유치원, 정원 등을 들며, 이들 공간이 사회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상적 공간 질서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본다.¹⁶⁾

이러한 공간들은 종종 폐쇄적이거나 통제된 구조를 가지며, 사회적 규범의 경계를 재구성하거나 일시적으로 전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또한 헤테로토피아가 일반적인 시간과 구분되는 고유한 시간성, 즉 '헤테로코로니(heterochronie)' 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공간과 시간의 특수한 중첩을 통해 사회적 담론과 권력의

16) Ibid., pp.53-63

관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¹⁷⁾

3.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마르셀 반더스 공간

3-1. 헤테로토피아 관점 선행연구

헤테로토피아의 공간표현 특성이 반더스 공간에서 가지는 역할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헤테로토피아 공간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핵심 개념 및 표현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 4]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표현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선정된 선행연구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기반으로 비밀상성과 이질성 공간을 해석하거나, 기억-정체성-문화를 공간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현대 건축 및 디자인의 사례연구가 목적인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게재된 총 7편의 연구로 구성된다.

[표 4] 헤테로토피아 공간 표현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 연도 | 연구자 | 주제 | 특성 |
|------|-----|--|--|
| 2021 | 강승목 | 일상의 문화적 기억과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 경계적 공간성, 기억의 재현 공간, 환상과 현실의 교차, 탈주와 전복의 가능성, 다층적 시간과 모호성, 반공간, 타자성의 공간 |
| 2021 | 공현진 | 헤테로토피아의 장소성 개념으로 바라본 울지로지역 보존의 의의 | 중첩된 이질성, 역사의 재현성, 문화적 저항공간, 비밀상적 재해석 공간, 반공간 |
| 2021 | 김연두 |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본 비밀상적 공간연구 -서펜타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 일탈과 변주를 통한 이질성, 규범 탈피를 통한 이의제기성, 투영을 통한 환상성, 주제적 인식 공간, 오브제적 상징성 |
| 2022 | 서수미 |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본 필립스타의 공간표현 특성 연구 | 상상의 전환성, 경계의 다층성, 이질적 중첩성, 타자성의 포용성, 개방/폐쇄의 이중성, 내러티브적 서사성 |
| 2022 | 연효숙 | 푸코의 비갈의 공간과 헤테로토피아 공동체 | 반공간, 현실전복성, 다층성과 이질성, 열림과 닫힘의 경계성, 모호성과 서사성 |
| 2022 | 윤미애 | 호텔과 헤테로토피아* 1)- 비키 바움의 호텔 사람들을 중심으로 | 열림과 닫힘의 구조, 환상의 헤테로토피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 헤테로코로니아-순환과 반복의 시간, 정체성의 변주와 저항성 |

17) Ibid., p.16

| | | | |
|------|-----|--|---------------------------|
| 2025 | 문선희 | SANAA 건축에 나타난 비표상성 연구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중심으로 | 유동적 주체성, 다층적 시간성, 혼종적 경계성 |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특성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표 5]은 선행 연구 결과이다. 각 연구로부터 추출한 키워드는 개념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어들을 출현 빈도에 따라 정리하고, 출현 빈도를 통해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키워드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도 기반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주요 개념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기존 연구들이 어떤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기능한다. 또한 개념 간의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 과정을 통해, 각 연구 간의 이론적 연계성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표 5] 선행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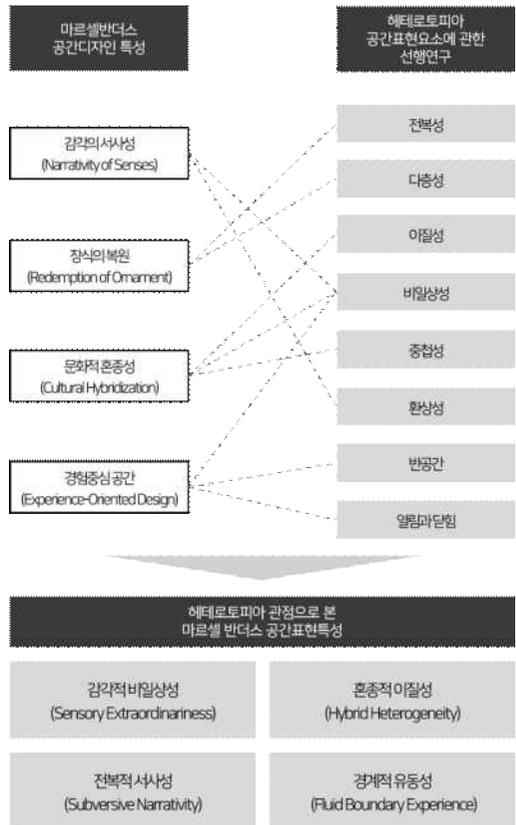
| 특성 | 1 | 2 | 3 | 4 | 5 | 6 | 7 | 출현빈도 |
|--------|---|---|---|---|---|---|---|------|
| 주체성 | | | ● | | | | ● | 2 |
| 혼종성 | | | | | | | ● | 1 |
| 비일상성 | ● | ● | ● | | | ● | | 4 |
| 중첩성 | ● | ● | | ● | | | | 3 |
| 재현성 | ● | ● | | | | | | 2 |
| 저항성 | | ● | | | | | ● | 2 |
| 이질성 | | ● | ● | ● | ● | | | 4 |
| 환상성 | ● | | ● | ● | | ● | | 4 |
| 전복성 | ● | ● | | | ● | | | 3 |
| 다층성 | ● | | | ● | ● | | ● | 4 |
| 순환성 | | | | | | ● | | 1 |
| 서사성 | | | | ● | ● | | | 2 |
| 열림과 닫힘 | | | | ● | ● | ● | ● | 4 |
| 반공간 | ● | ● | | | ● | | | 3 |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개념들은 헤테로토피아 담론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이나 관심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분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도출하여 주요 공간 특성을 분석의 기준틀로 설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후속 장에서 제시될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 분석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며, 각 사례의 표현 특성을 일관되게 비교·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2.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마르셀 반더스 공간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의 공간디자인이 지닌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디자인이 어떻게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과 접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앞서 선행 연구 결과로 도출된 헤테로토피아 공간표현 요소 8가지 상위 키워드(비일상성, 이질성, 환상성, 다층성, 열림과 닫힘, 중첩성, 전복성, 반공간)를 기준으로 삼아, 마르셀 반더스가 지향하는 감각적 서사, 장식적 복원, 문화적 혼종, 경험 중심성 등 네 가지 디자인 특성이 공간의 기호적, 구조적, 감각적 층위에서 어떻게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성과 교차하는지를 공간디자인의 주요 특성과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연결·대조하였다.

앞서 언급된 저자의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표현 요소와 마르셀 반더스 공간의 디자인 특성의 상응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반더스 공간 표현 특성

3-3. 소결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이 헤테로토피아 공간 요소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간 표현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분석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과 반더스 디자인 언어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분석의 틀로 적용 가능한 네 가지 핵심 기준을 도출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인 감각적 비일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은 각 기준마다 마르셀 반더스 디자인의 핵심 가치와 푸코가 정의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원리 및 유형 사이의 개념적·미학적 결합을 반영한 분석 축으로서, 반더스의 디자인 언어를 헤테로토피아적 감성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해석하는 핵심 도구로 작용한다. 아래 [표 6]은 각 기준이 어떤 헤테로토피아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의미를 확장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표 6] 헤테로토피아 관점의 마르셀 반더스 공간 특성 분석

| 분류 | 특성 | 특성 분석 |
|--------------------------------------|------|--|
| 감각적 비일상성 (Sensory Extraordinariness) | 비일상성 | 비일상성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리된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간은 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일상을 탈피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다. |
| | 환상성 | 환상성은 그 공간이 단지 다르지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상화하거나 왜곡하는 상상적 속성을 부여한다. 반더스는 이 같은 속성을 감각 중심의 서사, 비일상적인 재료와 형태, 강렬한 색채나 조명 효과 등으로 구현하며, 사용자가 공간 속에서 마치 '감각의 연극'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을 경험하게 만든다. |
| 혼종적 이질성 (Hybrid Heterogeneity) | 이질성 | 이질성은 단일한 질서가 아닌, 서로 충돌하는 질서들이 병존하는 공간을 뜻하며, 이는 반더스의 디자인에서 이국적 문양과 현대적 형태, 고전적 장식과 실험적 소재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 | 중첩성 | 중첩성은 이질적인 의미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 층층이 겹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는 반더스가 한 공간에 복수의 정체성과 스타일을 삽입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
| | 다층성 | 다층성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적·문화적·정신적 층위들이 중첩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
| 전복적 | 전 | 헤테로토피아의 전복성은 기존 질서와 제 |

| | | | |
|-------------------------------------|----------|--|---|
| 서사성 (Subversive Narrativity) | 복성 | 도의 상징체계를 흐드는 공간적 전략으로, 반더스는 이를 장식의 재해석을 통해 실현한다. 과거의 장식은 종종 퇴폐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배제되었지만, 그는 이를 역으로 부각시키며 기능주의적 디자인 패러다임을 전복한다. | |
| | 반공간 | 반공간 개념은 현실 속에 존재하면서 현실의 규칙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규칙을 따르는 공간으로, 반더스의 공간은 사용자에게 기존의 사회적 역할이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와 자아를 구성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 |
| | 환상성 | 환상성은 현실의 어떤 혹은 대안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제이자, 감각과 기호가 현실의 질서에서 이탈해 새로운 서사로 넘어가는 상징적 통로로 작용한다. 반더스는 극적인 장식, 몽환적 조명, 기이한 오브제 등을 통해 공간 속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사용자가 실제 세계를 넘어선 상상적 차원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 |
| 경계적 유동성 (Fluid Boundary Experience) | 열림과 닫힘 | 헤테로토피아에서 열림과 닫힘은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거나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입과 차단이 조절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반더스는 이러한 조절된 개방성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한 정서 상태나 의미 구조 속으로 유입되도록 공간을 연출한다. | |
| | 혼종성 | 혼종성은 이러한 유동적 경계 내에서 문화와 양식, 기능이 섞이며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 |
| | 반공간성 | 반공간성은 그러한 유동적 공간이 기존 제도적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더스의 공간은 정해진 사용 목적과 기능을 넘어서 감정, 정체성, 상상이 흘러드는 유기적 공간으로 작용하며, 사용자는 고정된 위치가 아닌 '이동하는 주체'로서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 |
| 특성 | | | |
| 비일상성 | ● 환상성 | ● 이질성 | ● |
| 중첩성 | ● 다층성 | ● 전복성 | ● |
| 반공간 | ● 열림과 닫힘 | ● | |

4. 사례 분석

4-1. 작품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마르셀 반더스의 대표작 중 단순한 기능적 장소를 넘어 이용자에게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무대로 구성된 호텔과 상업공간을 기준으로 5곳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이 다섯 사례는 지리적·문화적 맥락이 서로 다른 지역(중동, 북미, 유럽, 아시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철학이 어떻게 일관되게 구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도록 반더스의 감성적 서사와 장식적 요소,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조형적인 오브제의 연출이 구현된 공간으로 선정한다.

빌라 모다 바레인(Villa Moda Bahrain)은 바레인 중심부에 위치한 1,050㎡ 규모의 고급 리테일 공간으로, 전통적인 수크(souk)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현대적 미니멀리즘과 전통 장식의 조화를 통해 감각적이고 이질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마이애미의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Mondrian South Beach)는 342개의 스튜디오와 펜트하우스를 갖춘 5성급 호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을 모티브로 한 환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탈스케일의 황동 상들리에, 만화 캐릭터 얼굴이 그려진 벽면, 부유하는 듯한 금속 계단 등으로 구성된 내부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안다즈 프린센그라흐트(Andaz Amsterdam Prinsengracht)는 122개의 객실과 5개의 스위트룸을 갖춘 5성급 부티크 호텔로, 과거 공공 도서관 건물을 개조하여 탄생했다. 델프트 블루, 황금시대, 툴립 등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홍콩의 미라 문 호텔(Mira Moon Hong Kong)은 중국의 전통 설화인 '달의 여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동서양의 문화적 혼합이 돋보이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킴프턴 BEM 부다페스트(Kimpton BEM Budapest)는 19세기 맨션을 개조한 127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로, 헝가리의 민속 설화와 현대적인 감성이 결합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다섯 가지 사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마르셀 반더스 작품들 중에서 지역성의 창의적 재해석을 통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한 작업들로 평가된다. 각각의 공간은 단순히 시각적 장식이나 스타일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적 자극과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서사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익숙한 일상성과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이고 전복적인 체험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각

사례는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헤테로토피아적 감성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 가능성을 제공한다.

[표 7] 사례 분석 관점 기준

| 관점 | | |
|---|----------|-------|
| 본 연구에서는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이 지닌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특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헤테로토피아 공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들을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개념과 대응하여 총 4가지의 핵심 분석 특성 즉, 감각적 비일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으로 정리한다. 이 네 가지 분석 축은 다시 총 11가지의 하위 속성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이러한 하위 속성들을 각 공간 사례에 적용하여 해당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비율(%)로 정량화함으로써 공간 간 대조와 유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 | |
| 기준 | | |
| ● 완전한해결 | ● 부분적 해결 | ○ 미해결 |
| 70%~100% | 40%~70% | 0~40% |

다음 [표 8]는 사례 분석 대상 작품 개요이다. 대상의 순서는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표 8] 사례 기본 개요

| no | 작품명 | 위치 | 준공 연도 |
|----|-------------------------------|------------|-------|
| 1 | Villa Moda Bahrain | 바레인 | 2008 |
| 2 | Mondrian South Beach | 미국 마이애미 | 2008 |
| 3 | Andaz Amsterdam Prinsengracht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2012 |
| 4 | Mira Moon Hong Kong | 홍콩 | 2013 |
| 5 | Kimpton BEM Budapest | 헝가리 부다페스트 | 2024 |

4-2. 사례분석

[표 9] 빌라 모다 바레인(Villa Moda Bahrain)

| NO | 이름 | 연도 | 위치 | 유형 |
|---|--------------------|--|-----|----|
| 1 | Villa Moda Bahrain | 2008 | 바레인 | 소름 |
| 공간 이미지 | | 평면도 | | |
|  | |  | | |



설명
빌라 모다 바레인(2008)은 혼합된 문화의 풍부함과 정신, 모티프, 테크닉을 선보인다. 바다가 보이는 주요 중심지를 배경으로 한 이 매력적인 국제 수크는 바레인의 1050㎡ 규모의 소매 공간은 작은 고대 도시처럼 펼쳐져 있으며 길고 좁은 복도는 맞춤 제작된 카펫에 높은 천장, 거대한 흑백 패턴, 대규모 벽지, 비사자 모자이크 등 극적인 공간으로 이어진다. 소박한 흑백 색상 팔레트가 전시된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아이템의 배경 역할을 한다.

| 특성 | | | |
|----------------|---------------|---------------|-----------------|
| 감각적 비일상성 (S.E) | 혼종적 이질성 (H.H) | 전복적 서사성 (S.N) | 경계적 유동성 (F.B.E) |
| 비일상성 ● | 이질성 ● | 전복성 ● | 열림과 닫힘 ○ |
| 환상성 ● | 중첩성 ● | 반공간 ○ | 혼종성 ● |
| | 다층성 ● | 환상성 ● | 반공간 ○ |



공간 전체에 걸린 흑일부 소인도나 인테공간의 구조상 브랜 백의 패턴은 시각적리어 요소는 단순한드별로 독립적 공간 으로 강한 충격을 주상품 진열을 넘어,을 두어 다양한 시간 며. 중동의 전통 문스토리텔링을 연상시적 문화적 층위가 중 양에서 차용된 이국키는 오브제처럼 배치되어 다층성을 드 적 장식은, 문화적으치되어 현실의 상업내내면서, 전통적인 로 낱설고 이질적인공간이 아닌, 감각적시장의 요소를 현대 느낌을 주며 사용자연기 또는 환상 시나적으로 재해석하여 의 감각을 새롭게 자리오 속에 들어온 것새로운 쇼핑 경험을 극하는 효과를 준다같은 공간 연출이 특제공한다. 장식은 단순한 배경장이다.

이 아니라 공간의 서사를 구성하는 주체로 작용한다.

● 완전한해결 ○ 부분적 해결 ○ 미해결

[표 10]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Mondrian south beach)

| NO | 이름 | 연도 | 위치 | 유형 |
|--------|----------------------|------|---------|----|
| 2 | Mondrian south beach | 2008 | 미국 마이애미 | 호텔 |
| 공간 이미지 | | 평면도 | | |
| | | | | |



설명
몬드리안사우스비치는 마이애미 비치를 내려다보는 매력적인 전망을 가졌다. 이 호텔은 342개의 스튜디오, 1베드룸 및 2베드룸과 펜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잡자는 숲속의 공주의 성 컨셉으로 구성됐다. 감각적인 가구부터 침대 맞은편의 예상치 못한 캐릭터 얼굴, 오버사이즈 황동 중 상들리에, 끝없이 말리는 듯한 블랙 플로팅 메탈 계단 등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했다. 야외 공간은 상징적인 뉴 앤트크의자, 올 화이트 밀드테이블, 키 큰 녹색 카바나, 대형 쿠션과 야외 커튼이 있는 좌석 아일랜드 등 맞춤형 소품으로 꾸며진 인상적인 로비의 연속이다.

| 특성 | | | |
|----------------|---------------|---------------|-----------------|
| 감각적 비일상성 (S.E) | 혼종적 이질성 (H.H) | 전복적 서사성 (S.N) | 경계적 유동성 (F.B.E) |
| 비일상성 ● | 이질성 ● | 전복성 ● | 열림과 닫힘 ○ |
| 환상성 ● | 중첩성 ● | 반공간 ○ | 혼종성 ● |
| | 다층성 ● | 환상성 ● | 반공간 ○ |



공간은 특정 동화의 비현실적 크기의 상호호텔이라는 전형적 구조를 모티브로 하드리에는 단순한 조기능 공간에서 기대되, 고전적 동화외명이 아니라, 공간되는 미니멀함, 가능 현대적 미니멀리즘,천체의 중심이자 조성, 균형감이 해체되 과장된 바록 스타일형물로 가능하며, 일고, 극적 장식성과 을 혼합하여 동화적상 공간 기준을 무너 서사적 코드가 공간 내러티브를 물리적뜨린다. 공중에 떠의 주도권을 잡는다. 현실로 구현한 무대있는 인상을 주는 계근대 디자인에서 배 처럼 연출되기 때문단은 사용자가 물리제되었던 장식성의 에 '비현실적 세계의 구조보다는 '신비귀환이자, 기능주의 현실화는 매우 강한한 사공간을 걷는디자인 패러다임의 환상성을 생성한다. 듯한 감각을 경험히역전을 상징한다. 게 한다.

● 완전한해결 ○ 부분적 해결 ○ 미해결

[표 11] 안다즈 암스테르담 프린센흐라흐트 (Andaz Amsterdam Prinsengracht)

| NO | 이름 | 연도 | 위치 | 유형 |
|--------|-------------------------------|------|------------|----|
| 3 | Andaz Amsterdam Prinsengracht | 2012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호텔 |
| 공간 이미지 | | 평면도 | | |
| | | | | |



설명

안다즈 암스테르담 프린센그라흐트는 122개의 객실과 5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5성급 부티크 호텔이다. 하얏트 호텔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공공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환상적인 꿈의 세계로 변모했다. 이 호텔은 델프트 블루, 황금시대, 튜립 등 네덜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형 상들리에, 레드 튜립 의자, 고대 항해 지도가 그려진 카펫과 벽, 정원, 전망대 등이 아이콘 중 하나이며 안다즈 호텔 곳곳에서 50개의 비디오 화면에서 전례 없는 현대적인 비디오 아트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특성

| 감각적 비일상성 (S.E) | 혼종적 이질성 (H.H) | 전복적 서사성 (S.N) | 경계적 유동성 (F.B.E) |
|----------------------|---------------------|---------------------|-----------------------|
| 비일상성 ● | 이질성 ● | 전복성 ● | 열림과 닫힘 ○ |
| 환상성 ① | 중첩성 ● | 반공간 ● | 혼종성 ● |
| | 다층성 ● | 환상성 ● | 반공간 ① |

분석



전통 도자기 문양의 색상과 스타일을 유 지하면서도, 디지털 콜라주와 유기적 그 래픽을 겹쳐 배치했 다. 고전과 기술, 장인성과 기계적 정밀함이 충돌하면서 시각적 이질성이 발 생한다.

과거의 지식 공간이 었던 도서관이 시각 적 자극과 감각적 몰입을 유도하는 장 으로 전환된다. 또 한 기능과 무관한 장식이 공간의 중심 을 차지함으로써 기 능주의 미학을 거부 한다.

호텔 내부 곳곳에 설치된 아트워크와 설치 미술로 방문자 는 단순히 투숙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을 걷고, 해석하 고, 극적 상황에 초 대된 감정 주체로서 몰입하는 감각적 참 여자가 된다.

● 완전한해결 ● 부분적 해결 ○ 미해결

[표 12] 미라 문 홍콩(Mira Moon Hong Kong)

| NO | 이름 | 연도 | 위치 | 유형 |
|----|---------------------|------|----|----|
| 4 | Mira Moon Hong Kong | 2013 | 홍콩 | 호텔 |

공간 이미지 평면도



설명

미라문 호텔에서는 불멸의 달 여신이 세 개의 손으로 조각한 나무 종을 들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각 종은 중국 전통 달 축제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여신, 달, 토끼)를 상징한다. 인테 리어는 고풍스러운 중국 원단과 프린트, 모란 꽃 벽 디테일, 테일러드 카펫, 모자이크 등 현대적인 가구를 손님들에게 제공 한다. 도자기, 조각된 목재, 컵 크리스탈은 오렌지, 갈색, 연두 색의 따뜻한 색상 팔레트 안에 디자인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 니다. 현대 예술적 표현과 결합된 유산은 미라문을 이 지역에서 가장 독특하고 활기찬 호텔 인테리어 중 하나로 만들어 준 다.

특성

| 감각적 비일상성 (S.E) | 혼종적 이질성 (H.H) | 전복적 서사성 (S.N) | 경계적 유동성 (F.B.E) |
|----------------------|---------------------|---------------------|-----------------------|
| 비일상성 ① | 이질성 ● | 전복성 ● | 열림과 닫힘 ① |
| 환상성 ① | 중첩성 ● | 반공간 ● | 혼종성 ① |
| | 다층성 ● | 환상성 ● | 반공간 ① |

분석



'달의 여신' 설화를 중국 전통 문양(기하학적 상징과 오브 시각화한 달 모양 조문, 복숭아꽃 등)이 제들이 호텔을 '휴식 명, 구름 속에 떠 있 현대적 가구나 디지털 공간이 아닌 상상적 는 듯한 조명 배치, 월페이퍼와 결합 체험의 무대로 변모 문양 속 토끼 이미지 되어 전통과 현대 시킨다. 공간은 일상 등으로 설화적 환상 동양과 서양의 질서 의 역할에서 벗어나 을 현실로 전환한다. 가 병존한다. 또한 고, 전통 신호를 고 설화, 민속, 현대적 급 호텔 인테리어의 감각이 한 공간 내에 중심 모티브로 끌어 서 겹치는 다층적 성 음으로써, 기능 중심 격이 드러난다. 호텔 디자인 규범을 전복했다.

● 완전한해결 ● 부분적 해결 ○ 미해결

[표 13] 김튼 BEM 부다페스트(Kimpton BEM Budapest)

| NO | 이름 | 연도 | 위치 | 유형 |
|----|----------------------|------|-----------|----|
| 5 | Kimpton BEM Budapest | 2024 | 헝가리 부다페스트 | 호텔 |

공간 이미지





설명

19세기 다뉴브 강변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세련된 127개의 객실로 변신한 이 5성급 호텔 디자인은 부다페스트의 풍부한 민속과 활기찬 에너지, 헝가리 동화 '황금 사슴과 투룰버드'에서 영감을 받았다. 리셉션 데스크는 마르셀 반더스의 형상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 거꾸로 된 달걀 모양으로, 영원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황금 사슴이 있는 중앙 유리 아트리움, 오목한 천장, 무성한 녹지 등 눈에 띄는 건축 질감과 요소와 대조되는 '멋진' 색상의 팔레트가 특징이며, 각 객실은 강렬한 캐릭터와 매력적인 디테일로 장식된 개인적인 럭셔리 스토리를 펼쳐낸다.

특성

| 감각적 비밀상성 (S.E) | 혼종적 이질성 (H.H) | 전복적 서사성 (S.N) | 경계적 유동성 (F.B.E) |
|----------------|---------------|---------------|-----------------|
| 비밀상성 | ● 이질성 | ● 전복성 | ● 열림과 닫힘 |
| 환상성 | ● 중첩성 | ● 반공간 | ● 혼종성 |
| | ● 다층성 | ● 환상성 | ● 반공간 |

분석



헝가리 신화 속 '투룰버드' 새, '황금 사슴'을 형상화한 오브제와 조명 배치가 전설을 시각화. 마치 신화 속 한 장면처럼 공간이 구성된다. 헝가리 신화, 현대적 디자인, 그리고 관광적 도시 맥락이 공간 속에서 중첩된다.

헝가리 민속 문양과 금속 프레임의 미래적 구조물, 전통 벽화와 네온 아트가 병치되어 이질적 질감이 공존한다. 강렬한 색채, 상징적 오브제, 신화적 조영 연출로 현실감이 사라지고 상상의 물인 상태가 극대화된다.

호텔의 객실, 로비, 레스토랑 등 각 공간이 단일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품 갤러리이자 신화적 체험장이자 일상 공간이 겹쳐 있다. 호텔이 전통 서사 구조를 그대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에 이식함으로써, 관습적인 호텔 구조와 규칙을 뒤엎는다.

● 완전해결 ○ 부분적 해결 ○ 미해결

4-3 종합분석

마르셀 반더스의 사례분석대상 다섯 작품은 '감각적 비밀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이라는 네 가지 분석 기준 아래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창성을 발휘한다.

(1) 감각적 비밀상성

다섯 공간 모두 일상의 질서에서 탈피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경험의 차원을 제공한다. 1.빌라 모

다 바레인에서는 흑백 대형 패턴과 모자이크, 커스텀 오브제가 비밀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2.몬드리안 하우스 비치는 과장된 상들리에, 부유하는 계단, 민화적 요소 등으로 극단적인 시각적 연출을 시도한다. 5.킴튼 BEM은 금박 조각상과 역전된 조형물로 시선을 전복시키며 비밀상적 몰입을 유도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장식을 넘어서, 감각의 연극적 몰입을 유도하는 공간 체험을 설계한다는 데 있다.

(2) 혼종적 이질성

문화와 양식의 혼합은 반더스 디자인의 핵심 전략이다. 3.안다즈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 황금기, 델프트 블루 도자기라는 전통적 상징이 현대적 오브제와 결합되어 이질적 층위를 구성한다. 4.미라문 홍콩은 중국 전통문양과 첨단 호텔 디자인을 결합하여 공간마다 상이한 문화 코드를 중첩시키며, 5.킴튼 BEM은 헝가리 민속 요소와 컨템포러리 감각을 믹스해 시공간의 충돌을 극적으로 만든다. 이 공간들은 단일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복수의 정체성과 언어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지층'이다.

(3) 전복적 서사성

기존 질서나 제도의 기능을 해체하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방식에서도 반더스는 탁월하다. 2.몬드리안 하우스 비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성을 모티프로 하여 고전 동화와 현대 디자인을 교차시켜 동화적 반공간을 구현하고, 3.안다즈 암스테르담은 공공 도서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호텔로 재구성하여 장소의 기억을 재서사화한다. 4.미라문 홍콩과 5.킴튼 BEM은 각각 달의 여신과 황금 사슴 설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신화적 요소를 실내 공간에 삽입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역할과 자아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4) 경계적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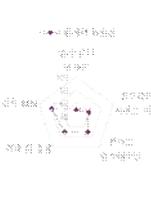
이들 공간은 기능적 구획을 엄격히 나누기보다, 서로 다른 기능과 감정, 상상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4.미라문 홍콩과 5.킴튼 BEM은 객실, 라운지, 레스토랑 등 모든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폐쇄와 개방 사이의 흐름을 유도한다. 특히 반더스는 이러한 유동성을 통해 사용자들이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감응할 수 있는 공간적 '여지'를 만들어낸다.

각 공간별로 정량화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4], [표 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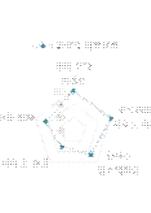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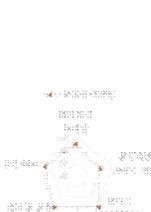
[표 14] 사례 분석을 통한 마르셀 반더스 공간특성 분석 결과

| 특성 | 감각적 비일상성 | | 혼종적 이질성 | | 전복적 서사성 | | 경계적 유동성 | | | |
|-------------------|----------|-----|---------|-----|---------|-----|---------|--------|-----|-----|
| | 비일상성 | 환상성 | 이질성 | 다층성 | 전복성 | 반공간 | 환상성 | 열림과 닫힘 | 혼종성 | 반공간 |
| 작품명 | | | | | | | | | | |
| 빌라 모다 바레인 | ● | ● | ● | ● | ● | ● | ● | ○ | ● | ○ |
|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 | ● | ● | ● | ● | ● | ● | ● | ● | ● | ○ |
| 안다즈 암스테르담 프린센흐라흐트 | ● | ● | ● | ● | ● | ● | ● | ○ | ● | ● |
| 미라 문 홍콩 | ● | ● | ● | ● | ● | ● | ● | ● | ● | ● |
| 킴튼 BEM 부다페스트 | ● | ● | ● | ● | ● | ● | ● | ● | ● | ● |

● 완전한해결 ○ 미해결

| | | | |
|---|-----------------|--|--|
| 3 | 전복적 서사성 (S.N) |  | 기존의 내러티브 구조를 전복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와 가장 높다. 몬드리안은 팝아트적 유머와, 미라 문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 안다즈는 지역성과 환상적 요소의 조합, 가 특징이다. |
| 4 | 경계적 유동성 (F.B.E) |  | 킴튼 BEM은 문화, 기능, 시간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넘나드는 공간으로 경계적 유동성이 가장 높다. 분석 대상이 비교적 폐쇄된 구조와 명확한 기능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라 경계적 유동성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

[표 15] 사례 분석을 통한 분석도식 결과

| 구분 | 공간특성 | 분석도식 | 표현특성 |
|----|----------------|---|--|
| 1 | 감각적 비일상성 (S.E) |  | 감각적 자극성과 일상성의 탈피 정도를 나타내는 이 항목에서는 몬드리안 사우스 비치와 빌라 모다 바레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공간 모두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기하학적 패턴과 색채 대비, 조형적 요소들이 비일상적 감각 경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
| 2 | 혼종적 이질성 (H.H) |  | 문화, 양식, 재료의 혼종성과 이질성의 조합을 뜻하는 이 항목에서는 미라 문 홍콩과 안다즈 암스테르담이 가장 높다. 안다즈와 미라 문은 각각 유럽 전통과 지역적 문화 요소, 그리고 동서양의 요소들이 뒤섞이며 복합적 이질성을 형성한다. |

5. 결론

5-1 연구 종합 결론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이 드러내는 복합적 미학과 공간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감각적 비일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이라는 네 가지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그의 대표적 작품 다섯 곳을 사례로 삼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반더스의 공간은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높은 표현력을 보였으며, 특히 감각적 비일상성과 전복적 서사성에서 일관된 강세를 보인다. 그는 공간을 단순한 기능적 배경이 아닌, 감각적 몰입과 서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만들며, 사용자 하여금 일상의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2.몬드리안 사우스 비치는 과장된 오브제와 동화적 모티프를 통해 극단적 비일상성과 환상성을 드러냈으며, 3.안다즈 암스테르담은 역사적 문맥과 현대적 디자인의 충돌을 통해 혼종성과 다층적 경험을 강조한다. 5.킴튼 BEM과 4.미라 문 홍콩 역시 지역 신화와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통성과 실험성, 정서성과 오락성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전략을 취한다. 이처럼 반더스의 공간은 기능·양식·문화의 고정된 이분법을 해체하고, 사용자 중심의 감각적 연극성과 서사적 유희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현대 공간 디자인의 미학적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5-2 연구의 한계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현대 공간디자인 분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철학적 의미보다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현대 디자인 특성과의 개념적 접점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감각적 비일상성, 혼종적 이질성, 전복적 서사성, 경계적 유동성’의 네 가지 분석 축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담론 내에서의 창의적 해석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헤테로토피아 개념의 본래 철학적 의도 및 사회비판적 맥락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으며, 자칫 개념의 축소나 왜곡으로 비춰질 우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의 전용이 아닌, 해석적 차용이라는 연구자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고, 푸코의 원 개념이 지닌 철학적 의미와 현대 디자인 문맥 사이의 연결 지점을 보다 엄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 가지 분석틀 중 ‘경계적 유동성’ 측면에서는 일부 사례에서 매칭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이 호텔이나 상업공간처럼 비교적 폐쇄된 구조와 명확한 기능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공간은 유동성과 반공간성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개방성과 비고정성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조건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주관적 평가에 기반한 정성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사용자 경험을 실증적으로 수집하거나 다양한 문화권의 인식을 교차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 관찰, 감각 반응 분석 등을 통한 다층적이고 경험 기반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마르셀 반더스의 공간 디자인을 단지 조형적 실험이나 브랜드 전략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 동시대 디자인 담론의 철학적, 문화적 전환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공간의 감각화’와 ‘서사화’, ‘경계의 유동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분석틀은 향후 타 디자이너의 작업이나 도시공간, 문화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이상길 역)
2. Marcel Wanders, Marcel Wanders: Interiors, 2011.
3. Marcel Wanders, Marcel Wanders: Behind the Ceiling, Gestalten, 2013.
4. Michel Foucault,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 1967년 강연 원고, 1984.
5. www.audi-me.com/en/
6. www.louiskalffinstituut.nl/en/translated/
7. press.marcelwanders.com/wp-content/uploads/2017/11/Biography_Marcel_Wanders-1.pdf
8. www.re-thinkingthefuture.com
9. www.dacapoalcodogallery.com
10. www.marcelwanders.com